

1일 1지문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26

##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31~34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 오규원, 「봄」-

(가)

만년(萬年)을 짜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방울 피마저 불어 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뱀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뱀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마음 가난하거니 입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숫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九天)에 사모침을 입은 듣는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숫이 되는 날까지  
그 숫이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 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 조지훈, 「맹세」 -

(나)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  
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  
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봄은 자유다. 자 바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잎 달고 싶  
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  
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래 봄은 지옥이다.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옳  
으면 자,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1연과 6연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 인식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4연과 9연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 ③ (나)는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하면서 쉼표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④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나)는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낸다.
- ⑤ (가)는 같은 시구를 5연, 10연의 마지막에서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나)는 1연 끝 문장의 시어를 2연 첫 문장으로 연결하며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32.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에게 자랑스레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을 포함한다.
- ②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 준 희생과 설움을 담고 있다.
- ③ 대나무에 서린 임의 뜻을 잊으려는 화자를 질책한다.
- ④ 피리의 흐느낌에 호응하여 화자의 억울함을 해소한다.
- ⑤ 구천에 사무친 원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33. 다음에 따라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 (가)는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짐에 비해,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차이를 보여요.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도 해요.

- ① (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일 거야.
- ②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를 거야.
- ③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있어.
- ④ (가)의 화자는 '피마저 불어 넣'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 ⑤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고,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어.

34.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 준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 ① ㉠은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 ② ㉡은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면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 ③ ㉢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 ④ ㉣은 대상들을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외부 상황에 변화를 주었음을 의미한다.
- ⑤ ㉤은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여 자신이 제한한 의미에 따라 대상들이 움직임의 의미를 의미한다.